

가을 극장가 '불꽃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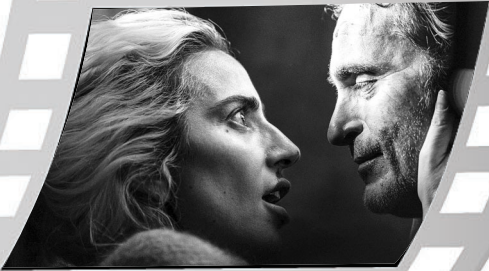
'아마존 활명수'



'대도시의 사랑법'



'보통의 가족'



'조커'

전통적으로 극장가 비수기로 꼽혀온 10월 극장가에 한국 상업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면서 '불꽃 경쟁'을 벌인다.

이들 영화는 최근 흥행몰이 중인 '베터랑 2'와의 맞대결은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양한 한국 작품이 나오는 데다 할리우드 기대작 '조커: 폴리아'와 대적해야 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고은과 노상현이 주연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다음 달 1일 극장에 걸린다.

이연희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박상영 작가의 동명 소설집에 실린 '재희'를 원작으로 한다. 눈치 보는 법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대학생 재희(김고은 분)와 태생적 비밀을 숨기는 법에 통달한 흥수(노상현)가 동고동락하며 펼치는 사랑법을 그린다.

성별만 다를 뿐 동성 친구나 다름없는 일명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과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 사이의 우정을 다루고, 방황하던 청춘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는 점은 20~30대 관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만한 요소다.

같은 달 9일에는 허진호 감독의 신작 '보통의 가족'이 관객을 찾는다. 허 감독이 '천문: 하늘에 묻는다'(2019) 이후 5년 만에 내놓는 새 영화다.

네덜란드 작가 헤르만 코흐의 베스트셀러 소설 '디너'를 뼈대로 한 '보통의 가족'은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두 쌍의 중산층 부부가 자녀의 범죄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서 조금씩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설경구와 장동건, 김희애, 수현 등이 주연을 맡았다.

'보통의 가족'은 국내 개봉에 앞서 북미 지역 최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48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비롯한 19개 영화제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됐다.

류승룡과 진선규가 주연한 코미디 영화 '아마존 활명수'는

'대도시의 사랑법'·'보통의 가족'

'아마존 활명수' 등 신작 줄개봉

할리우드 기대작 '조커 2'도 가세

코믹·멜로 등 다채...독립영화도 경쟁

다음 달 30일 개봉한다. 스릴러물 '발신제한'(2021)을 연출한 김창주 감독의 신작이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인 전 양궁 국가대표 선수 진봉(류승룡)이 통역사 뺑식(진선규)과 신이 내린 할 솜씨의 아마존 전사 3인방을 만나며 겪는 일을 담았다.

천만 영화 '극한직업'(2019)의 시나리오를 쓴 배세영 작가가 각본을 담당하고, 이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던 류승룡과 진선규가 재회해 기대감을 모은다.

소규모·독립 영화 라인업도 만만치 않다. 제작비는 주요 상업 영화보다 적어도 주목도만큼은 밀리지 않는 영화들이 다수 포진했다.

한소희가 신인 시절 촬영한 쿼터 영화 '폭설', 이동휘·한지은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결혼, 하겠나?', 김종관·노덕·이명세·장항준 감독이 공동 연출하고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던 심은경이 6년 만에 출연한 한국 영화 '더 킬러스' 등이다.

다음 달 1일 개봉하는 '조커 2'는 527만여 명을 동원해 청소년 관람불가 외화로는 이례적 성공을 거둔 '조커'(2019)의 속편이다. 아랍 수용소에 수감된 조커(호아킨 피닉스)와 할리퀸(레이디 가가)의 운명적인 만남과 조커의 재판과정을 그린다.

'조커 2'는 최근 폐막한 제81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됐다.

다만 전편이 그랬듯이 평단의 반응은 엇갈리는 양상이다. 대체로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뛰어나고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와 영성미는 여전히지만, 일부 장면이 과장되고 스토리가 다소 지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연합뉴스



백종원

'요리 계급 전쟁' 돌풍

넷플 '흑백요리사' 1~4부 공개

단숨에 국내 1위·세계 10위 올라

넷플릭스가 선보인 오리지널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이 초반부 흥행몰이를 하면서 '피지컬: 100'의 뒤를 이을 서바이벌 흥행작이 될지 주목된다.

22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를 따르면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가 1~4부를 공개한 17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내 1위를 기록했고, 20일에는 세계 10위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공식적으로 주간 단위로만 순위를 공개하고 있어 첫 성적표는 이달 25일에 나오게 된다. 서비스 화면 내 '오늘 대한민국 톱10 시리즈' 코너에 '흑백요리사'가 1위로 소개돼 있어 높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12부작인 '흑백요리사'는 이달 24일 5~7부, 내달 1일 8~10부, 내달 8일 11~12부가 공개된다.

'흑백요리사'는 최고의 요리사 자리를 놓고 100명이 경쟁을 펼치는 과정을 담은 서바이벌 예능이다. 이 프로그램은 넓은 세트장에 100명의 경연 출연자가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내고 이들이 누군지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80명은 '흑수저' 셰프로 명명되며 각자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셰프나 요리 유튜버 등이다. 굳이 이들 흑수저 셰프를 내려다보는 높은 자리에 새하얀 조리복을 입은 20명의 '백수저' 셰프가 나타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요식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이들이다.

마지막으로 2명의 심사위원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안성재 모수 서울 셰프가 모습을 드러낸다.

첫 과제는 80명의 흑수저 셰프만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각자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선택해 심사위원에게 선보여 20명만 생존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살아남은 이들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백수저 셰프들과 대결할 수 있다. 3부에서 흑수저 셰프 60명의 탈락이 확정되고, 생존한 이들은 백수저 셰프와 1대 1로 짝을 이뤄 대결을 펼친다. 경연 상대인 두 사람은 임의로 정해진 똑같은 주재료를 써야 하고 백종원과 안성재 두 심사위원이 눈을 가린 채 음식 맛만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특히 적지 않은 시청자가 "'피지컬: 100' 요리판"이라며 공통점에 주목했다. 넷플릭스가 제작했다는 점뿐 아니라 경연 참가자가 100명으로 똑같은 대규모 서바이벌이라는 점 등이 '피지컬: 100' 시리즈와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피지컬: 100' 시리즈는 시즌1 공개 당시 주간 비영어권 시청 1위를 2주 연속으로 차지하며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작한 모든 예능 가운데 가장 큰 흥행을 거뒀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HYLT' MV 13억뷰 넘었다

첫 공개 4년 3개월만·통산 6번째...안무영상도 17억뷰 눈앞

걸그룹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HYLT))·시진)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13억건을 넘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1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6시 22분께 13억뷰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공개 이후 약 4년 3개월 만으로, 블랙핑크 자체 통산 6번째 13억뷰 영상이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말고 높이 비상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다.

이 곡은 2020년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올여름 최고의 곡'(Song of The Summer)을 수상했고, 같은 해 유튜브 선정 '글로벌 톱 서머 송'(Global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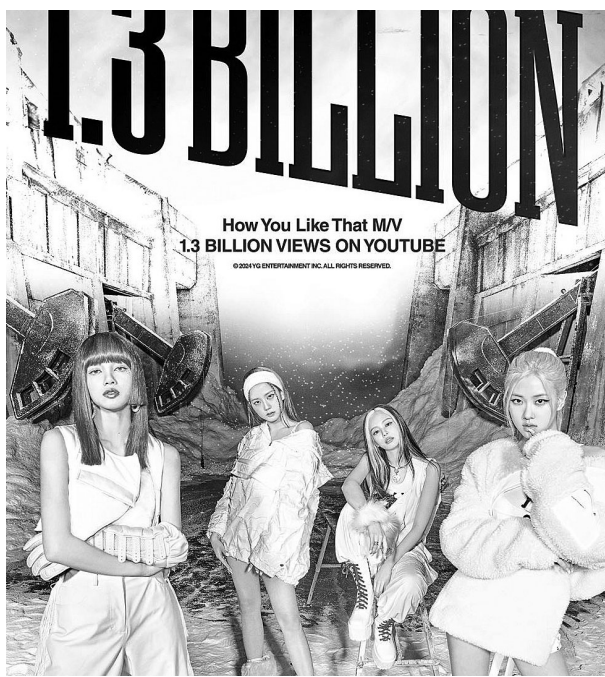
Summer Song) 1위에도 올랐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은 국내 음원 차트를 석권한 데 이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각각 33위와 20위를 차지했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의 퍼포먼스 비디오 역시 17억뷰 돌파를 앞두고 있다.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전 세계 가수 중 최다인 9480만 명 이상을 자랑한다. 콘텐츠 누적 조회 수는 367억건에 달한다.

블랙핑크는 내년 완전체로 컴백해 월드투어를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